

〈서 평〉

비교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지평: 후견-피후견주의의 이론적 성장

Wookhee Shin,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Political Economy in the Cold War*, 서울: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 1993, 197.

南 昌 熙

〈國防研究院〉

필자가 신욱희박사를 알게 된 것은 1993년도 국제정치학회 연례 학술발표회장에서 신욱희박사의 논문발표를 듣게 되면서 후견-피후견주의 이론을 같이 전공한 사실을 알고 반가운 마음에서 인사를 나누면서부터였다. 그후에도 정치학회등 학회세미나를 통해 학문적 교분을 쌓아 오던 중 신박사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을 계기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돌이켜 나누게 되었다. 신박사는 동부의 예일대에서 공부하였고 필자는 중부의 캔사스대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지금까지의 비교정치경제학의 이론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박사의 본 저서에 대한 서평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다.

본 저서의 일관된 논점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유도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은 미국과의 피후견적 권계로 대미자율성의 희생하에 원조와 차관을 레버리지로 국내의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되고 그 정책 집행역량은 강대하지만 정통성은 취약한 한국의 국가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이 특징은 냉전기의 한미간의 후견-피후견관계라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초래된 특수한 쌍무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차례대로 정리한 신박사의 체계가 저서의 37-38쪽에 제시되고 있다. 즉 첫째로 냉전기의 지정학적 요인이 미국과의 후견-피후견관계를 통해 한국에 강압국가(coercive state)의 대두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둘째로 미국과의 후견-피후견 쌍무관계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는 정통성을 희생시키면서 국가의 역량을 증대시켰다. 셋째 이 결과 미국과의 후견-피후견관계를 수용하면서 그 댓가로 얻어진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자율성을 산업화를 추진하는 경제정책 집행과정에서 누릴 수 있었다. 즉 종합적으로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면, 냉전기의 외부의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한미간의 후견-피후견적 관계가 종속적인 군사적 산업화라는 특성을 노정하면서

박사의 논문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외부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탈냉전기의 한미관계의 변질, 민주화 과정에서의 한국 국내의 정치경제과정의 변화도 추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본 논문의 테제의 설명 영역을 동적인 변화의 분석에까지의 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한미간 후견-피후견관계가 약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내자율성과 국가역량이 약화된 반면 대외자율성과 국가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상기의 주장을 전개함에 있어 각 장절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도입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2절에서 기존의 동아시아 정치경제를 설명하는 신고전학과, 강성국가론,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등 최근까지의 이론화 성과를 요약하고 비판하여 자신의 논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였다. 3절에서는 지정학적 요인의 도입을 인과관계의 도식을 통해 선명하고 인상깊게 재기하였다. 3절의 b항에서는 분석수준의 문제와 공시(spatio-temporal)적 접근법을 정당화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론화를 시도하였는데, 1절에서는 외부요인으로서 한미간의 후견-피후견관계를 개념화하였고 그 관계의 성격을 묘사하였다. 1절의 c항에서 바로 핵심적 주장에 해당하는 한미간의 후견-피후견관계와 한국의 경제성장 패턴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테제를 설정하였다. 2장의 2절은 분석적인 틀을 개발하여 논점을 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a항에서는 외부투입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국가의 특징을 자율성(autonomy), 국가역량(state capacity)과 정통성(legitimacy)의 3차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다. b, c항에서는 국가의 대내와 대외 자율성을 교차비교하고 국가역량과 정통성을 교차비교하는 매트릭스를 제시하여 한미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국가의 성격변화를 각 정부별로 시계열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장의 d항에서는 국가 성격의 변화가 경제성장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테제를 정리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인과관계 구조를 완결지었다. 3-5장은 1, 2장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으로 3장은 한미간의 후견-피후견관계의 발생을 역사적으로 추적함에 있어서 먼저 냉전기의 세계체제를 묘사한 뒤 이것이 동북아 지역내에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 투사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이 결과 형성된 한국, 일본, 미국의 삼자가 개입된 동북아 후견-피후견 안보구조를 묘사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한미간의 후견-피후견관계가 한국의 국가의 성격변화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식민지시기, 제1공화국, 제2공화국, 군정, 제3공화국기에 있어서의 역사적 추적을 한 뒤 2절에서는 이것을 재구성하여 상기의 교차메트릭스에 대입하여 한국의 국가의 3차원에 있어서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인과관계구조의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성격 변화와 경제성장정책과 관계의 분석을 여러 경험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6장에서는 1절에 지금까지의 논리구조에 따라 탈냉전기의 한미관계의 변화와 국가의 성격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제시한 뒤 몇 가지 추가 연구 과제를 제

기하면서 주장을 최종 정리하였다. 이처럼 짜임새 있고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논문의 구성면에 있어서도 신박사의 본 저서는 또 한번 설득력 있는 논증의 예로서 모범이 된다고 생각된다.

높이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본 저서는 여러 점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훌륭한 논문이라고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신박사의 신진학자로서의 의욕이 강하게 표출된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찌기 보체나우가 선창한 바도 있듯이 국제정치의 영역과 비교정치경제학의 영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신박사의 방법론적 문제의식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이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이다. 기존의 다양한 경제성장 실적의 정치적 원인을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성과들은 국가수준에서만 단일수준분석(uni-level analysis)으로 요인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국제차원이 투입요인을 간과함으로써 80년대에 풍미했던 스카치폴(Skocpol), 크라스너(Krasner), 트림버거(Trimberger), 암즈덴(Amsden) 등의 강성국가론 이후로 이론적 발전이 지체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욕이 돋보이는 점이다. 특히 본 논문이 국제수준의 투입요인과 국내정치경제 과정의 연관고리를 일관되게 설정하는 광범하고 어려운 연구과제에 도전했다는 점에서도 학문적인 공헌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후견-피후견모델을 성공적으로 한-미간 쌍무관계를 모형화하는 데 적용한 점이다. 후견-피후견모델은 일찌기 50년대에 울프(Wolf), 이시노(Ishino), 포스터(Foster) 등 인류학자들이 지역공동체, 공장 등 근대조직내에서 발견되는 호혜적 특수쌍자(dyad)관계를 개념화하면서 시발된 인류학의 모델이었다. 후에 필자의 지도교수인 란데(Lande)와 예일대의 스콧(Scott) 등 정치학자들이 6-70년대에 후견-피후견모델을 후진국의 정치엘리트의 피후견인집단의 조작을 통한 지배형태, 피후견적 투표형태, 후진국의 이익표출과정, 근대화-산업화과정에서의 피후견주의의 변형과정, 후견-피후견적 정부-기업관계 등에 적용하면서 정치학에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후에 란데, 르마르상(Lemarchand), 렉(Legg) 등이 피후견주의의 발생 및 성장조건과 쇠퇴과정을 좀더 공식적으로 이론화하였다. 최근에 와서 국제관계내의 쌍무관계를 후견-피후견모델로 개념화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냉전기에 동서블록의 집단적 대치상황에서 그 속에 숨어 있던 차별적이고 특수한 특혜교환관계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노출되고 학문적 시의성을 갖게 되면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즉 예를 들어 동서냉전기에는 미국의 동맹국의 일원으로서만 자리매김되었으나 공동의 적인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한미관계가 탈냉전기에 재조성과 갈등을 노정하면서 기존의 특혜교환관계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필요해진 것이다. 신박사의 본 저서가 가치를 더욱 높게 가지게 되는 데는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적시성에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92년도의 시카고 APSA와 93년도 워싱턴 APSA에서 비교정치학과 미국정치론, 국제정치분야의 많은 신진 논문들을 필자가

서베이하는 중에 *clientelism, clientele, patronage* 등의 후견-피후견주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경향을 발견한 바도 있었지만 본 모델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한 적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비교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의 독자적인 이론영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신박사의 본 논문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후견-피후견주의의 이론화에 일조했다는 점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는 본 저서가 최근의 국제정치학과 비교정치학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포용하고 동시에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설명방법에 대한 창조적인 이론화 과정을 정치학 방법론의 원칙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실천한 점이 본 논문의 학문적 신뢰성을 다시 한번 실득력있게 제시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알파벳순으로 몇명만 추려 예를 든다면 Cumings, Evans, Gourevitch, Haggard, Moon, Tilly의 연구성과들에 깊이 영향을 받아 이론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신박사의 논점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골격이었음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력적 연구는 지식의 집중적 축적과 학문적 호환성을 기하는 데 유용한 강점이 있거니와 후학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귀중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본 저서의 근간에 흐르는 사례연구의 경험적 충실성과 이론적-분석적 엄밀성 (*theoretical-analytical rigor*)과의 조화가 특히 돋보인다고 생각된다. 신박사는 자신의 논거를 입증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실증적 1차자료를 사용하였고 공통된 주제의 타연구자의 경험적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논점을 통일시키기 위한 분석적인 틀을 개발하여 간명하게 독자적인 주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의 미국정치학계의 주도적 추세가 일반이론도출을 위해 통계학을 이용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고집하는 행태주의와 역사성과 사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례중심·지역연구간의 물과 기름같은 갈등을 극복하여 성숙된 변증법적 상승통일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음을 본문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도 본 논문이 엄정한 미국정치학의 독자성을 염두에 두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저서에 대한 필자의 보충적인 논점을 한가지 제기하면서 서평을 종결하고자 한다. 신박사의 주장의 골간은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인과관계 도식에 있다.

국외투입요인

(한미간 후견-피후견관계) → 외적 자율성 축소

→ 내적 자율성 확대

→ 국가역량증대

→ 정동성 약화 등 한국강압국가의 성격변화

한국강압국가의 성격변화 → 종속적, 군사적, 외부지향적 경제성장

신박사가 식민지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간단히 언급했으나 필자의 편견에 의하면 한국국가의 외적 자율성의 축소, 내적 자율성의 확대, 국가역량의 증대와 정통성의 약화와 과정은 냉전하에 미국과의 후견-피후견관계 설정이후에만 등장했던 것이기보다는……분명히 이승만과 장면정권에 비해 박정희정권에 상기 성격변화가 뚜렷했지만—일본의 식민지시기에 한국의 일제와의 유착세력이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피후견주의 경험과 전통이 보다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필자가 신박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긴 시간 푸레임에서 보면 역사적 경험도 한국의 지배엘리트내에 남북한의 경쟁적 대치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하여 주체적으로 미국과의 후견-피후견적 관계를 유도했던 의미있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본 저서를 보충할 수 있는 논점이라고 생각된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지배엘리트와 경제엘리트의 일제통치기의 식민지에서의 일본과의 불리한 조건에서의 특혜교환거래의 역사적 경험이 한미간 특혜교환거래 과정에서 대비, 대일홍성을 한국에 유리하게 하는 외교기술적 관리에도 일조했으리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신박사의 저서의 결론부와 참고문헌까지 읽고나서 후견-피후견모델이 한미간 관계모형화에 높은 적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본 저서가 변화하는 탈냉전기의 한미관계의 미래 좌표를 설정하는 연구과제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교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중심적 연구성과로 인정될 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다. 앞으로도 신박사가 본 저서에서 보여진 열정적인 학문적 탐구심과 엄정한 학자적 자세로 이 분야의 연구지평을 새롭게 열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